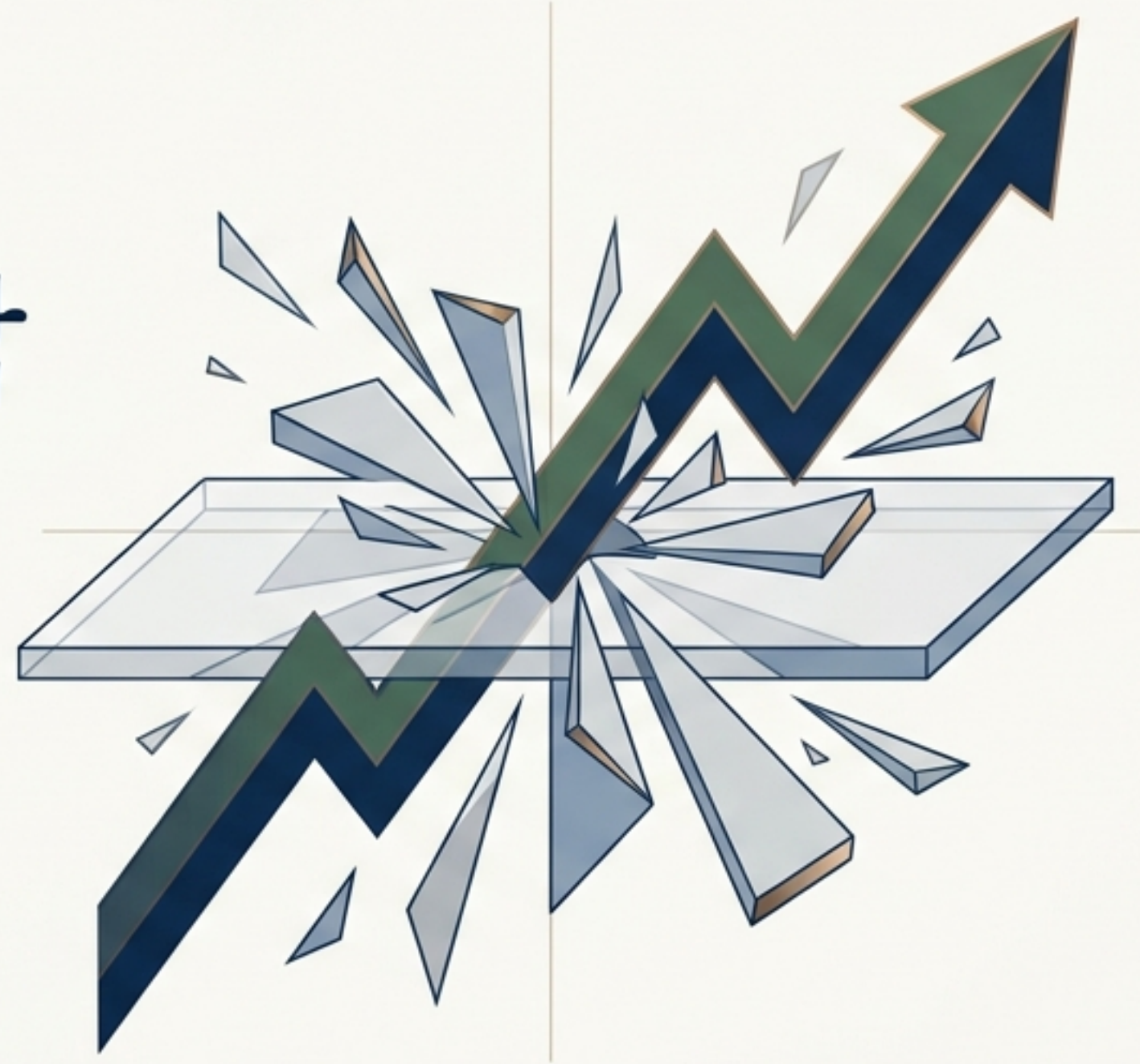


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: 코스피 7,000 시대의 개막

2026년 5월 6일 | 핵심 마감 지표 및 주간 전략

AI 성장 엔진과 부동산 머니무브가
만들어낸 역사적 변곡점



KOSPI

7,384.56

+6.45% ↑

SAMSUNG

\$1 Trillion

시가총액 1555.1조 원 클럽 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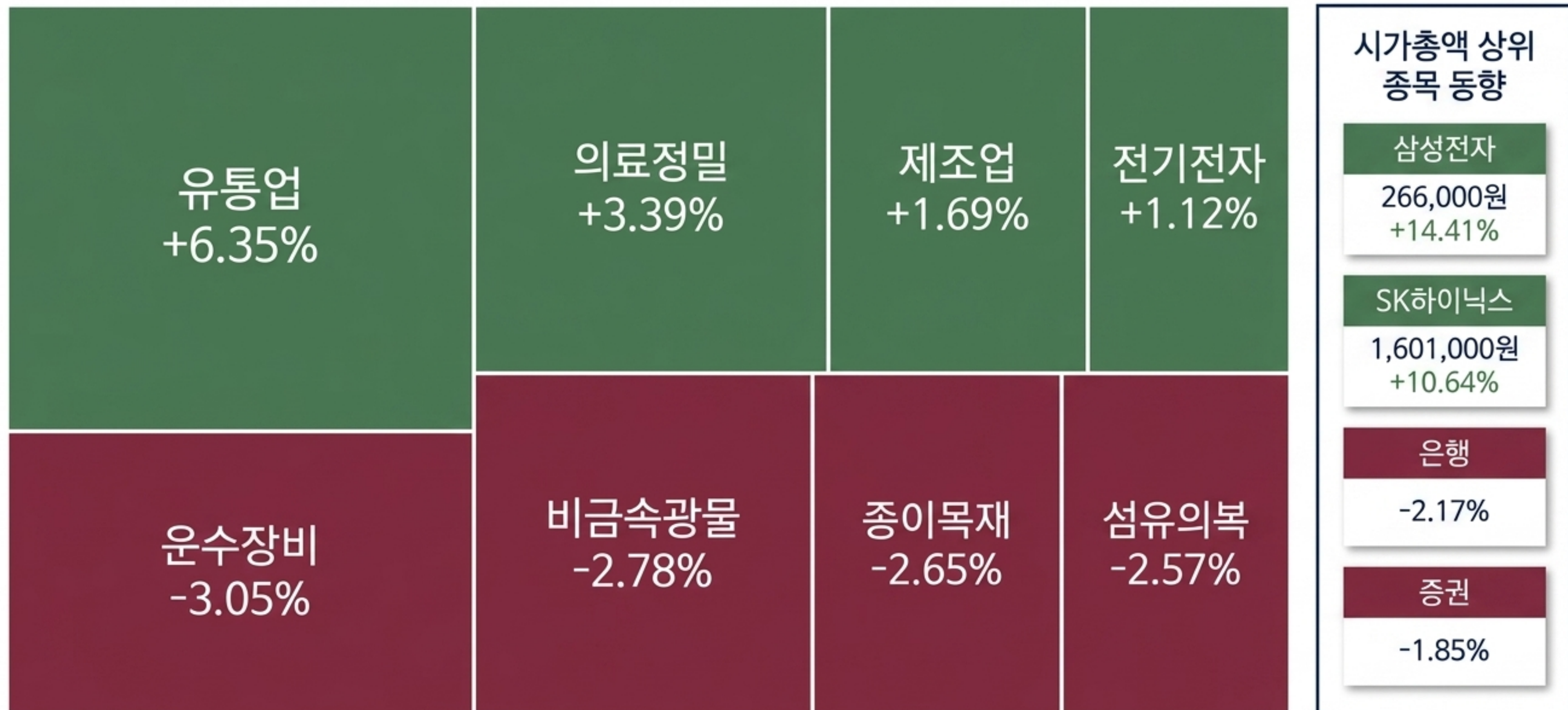
**반도체·바이오 주력
산업의 압도적 랠리.**

삼성전자 +14.41%,
SK하이닉스 +10.64%

**대한민국 증시 사상
최초 7,300선 돌파.
올해 누적 75% 상승으로
글로벌 증시 1위.**

**부동산 불패 신화를
꺾고 매각 자금이
증시로 유입되는
'머니무브' 폭발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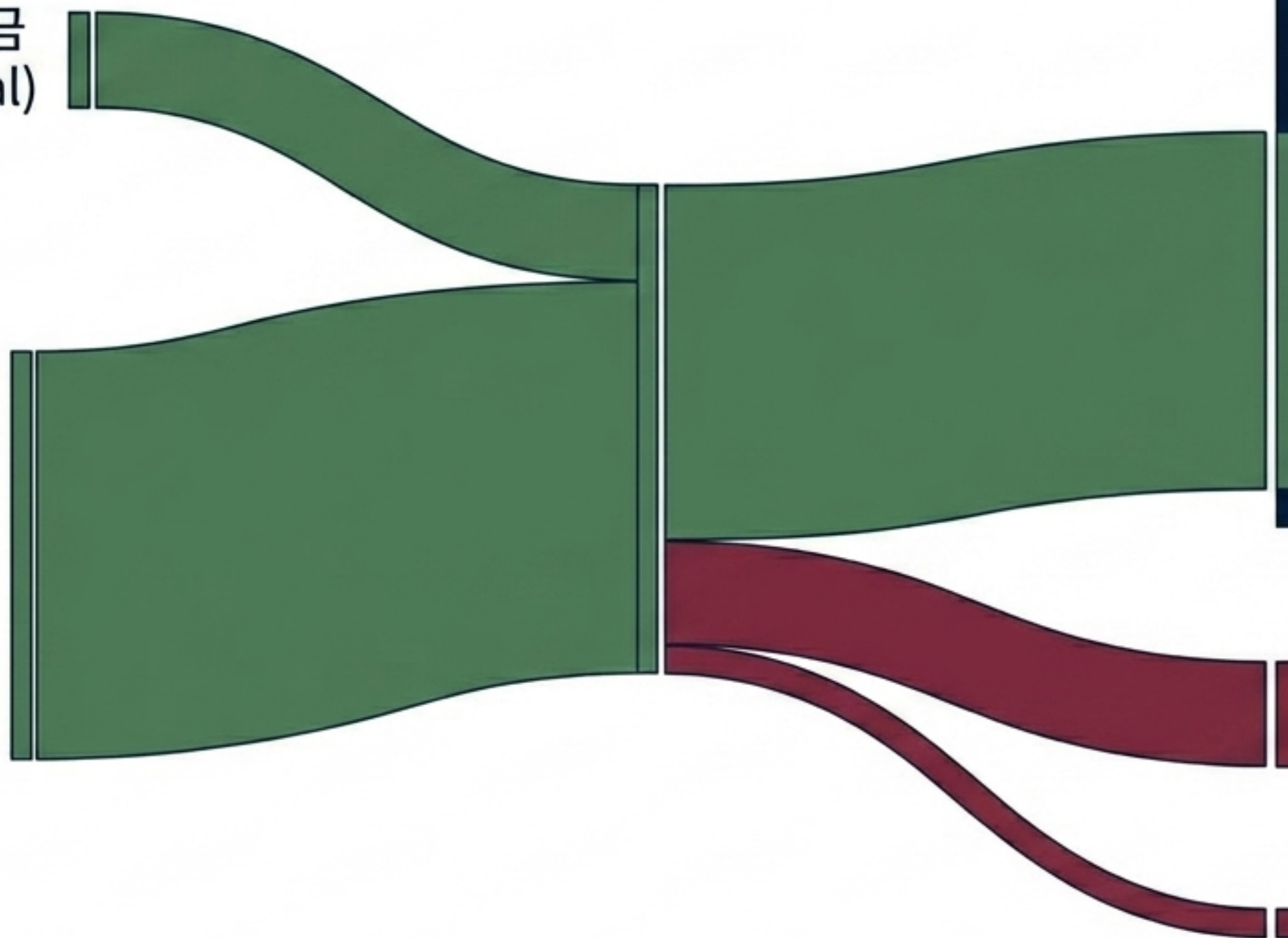
쏟림과 소외: 극단적으로 엇갈린 섹터별 온도차



거대한 유동성의 이동: 외국인 주도의 KOSPI 랠리

부동산 시장 이탈 자금
(Real Estate Capital)
→ 증시 유입

외국인 투자자
(+1,184.2만 주 /
약 3조 원 순매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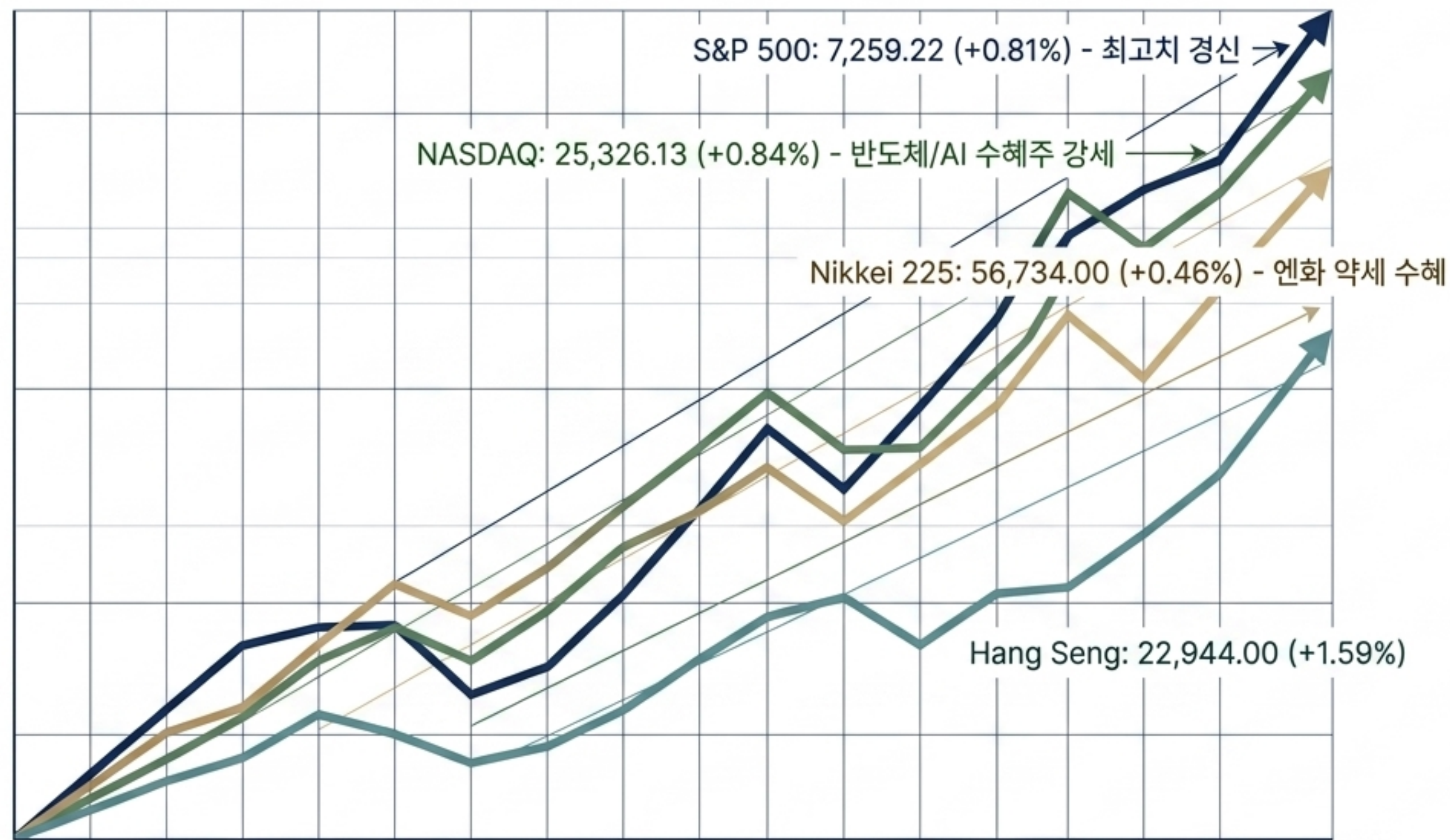


**KOSPI 사상
최고치 경신.**
(KOSDAQ은 -0.29%
하락하며 코스피 대형주
위주의 쏠림 현상 증명).

개인 투자자
(-932.4만 주 순매도)

기관 투자자
(-222.2만 주 순매도)

글로벌 증시 동조화: 전쟁 변동성을 뚫고 전진하는 매크로 엔진



성장 동력 요인

1. AI 구조적 성장.
2. 미·중 담판 기대감.
3. 유가 하락 및 기업 실적 호조.

하버드 교수의 경고: 지금 미국 주식 매수 시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익률을 예상해야 한다. (과열에 대한 신중론 [레드](#))

매크로 지표의 역설: 인플레이션 압력과 안전자산 선호의 공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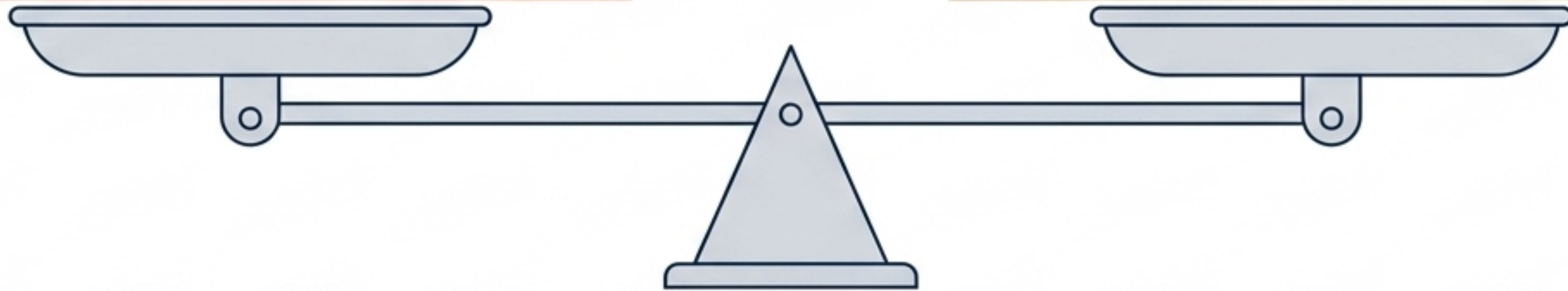
미 국채 10Y: 4.384% (+5bp)
- FOMC 매파 기조 반영.

WTI 원유: \$64.89 (+\$2.62)
- 감산 연장 기대 및 물가 상승 압력.

원/달러 환율: 1,476.24원 (-5.30원)
-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.

금 (XAU): \$103,000 (+\$18)
- 꺾이지 않는 안전자산 수요.

비트코인: \$103,000 (+\$1,240)
- ETF 순유입 지속 및 대체자산 강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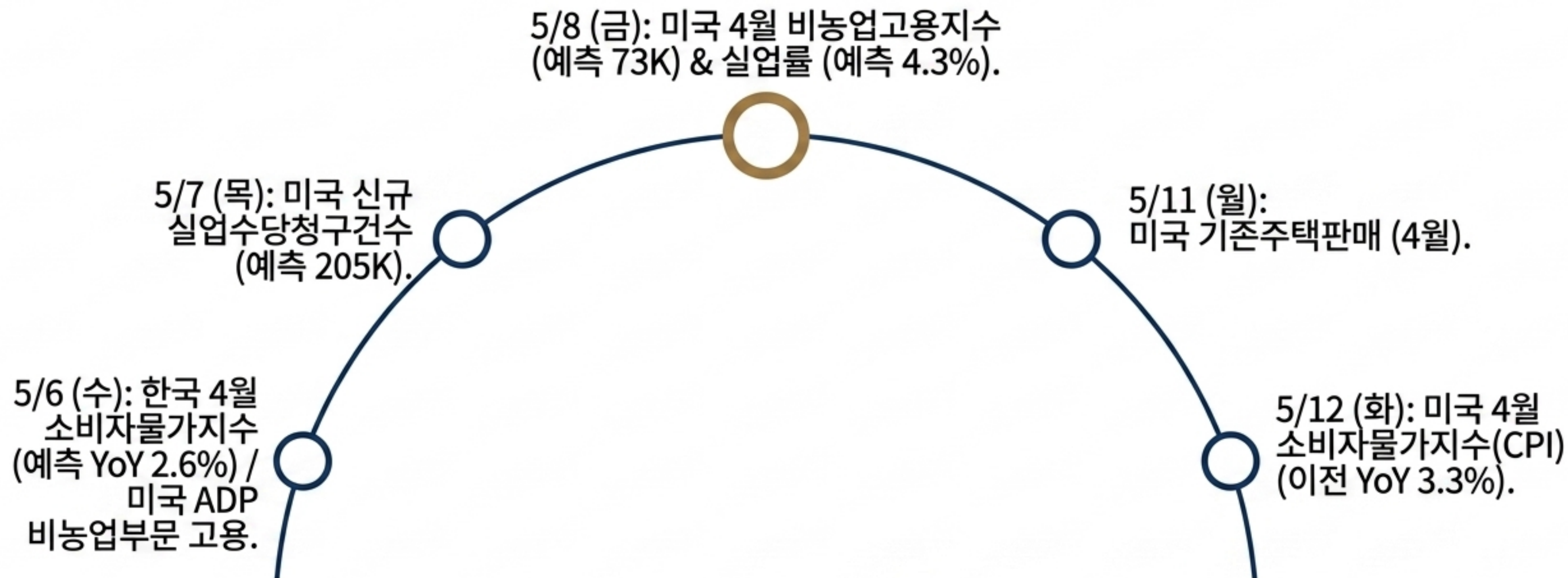


수익률 상승(긴축 우려)과 금·비트코인 동시 상승(시스템 헷지)이라는 변동성 높은 흐름 지속.
시장은 환희 속에서도 극도의 경계감을 유지 중.

기회와 위험의 공존: KOSPI 7,000 시대를 위협하는 그림자

강세 동력 (Catalysts)	잠재적 뇌관 (Hidden Risks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반도체 및 AI 슈퍼사이클 (컴포트시스템스 등 연초 대비 96% 폭등).- 기록적인 외국인 순매수 (단일 3조 원 유입).-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거대한 '머니무브' 시작.- 중동 쇼크 완화 및 미·중 담판 기대감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공매도 잔고 20조 원 돌파: 역대급으로 치솟은 공포지수.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변동성 뇌관.- 국내 4월 소비자물가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(국제유가 여파).- 지속되는 FOMC 매파적 기조와 미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(4.38% 돌파).

주간 매크로 트리거: 랠리의 지속성을 시험할 핵심 변수 (5/6 ~ 5/12)



고용과 물가: 연준(Fed)의 다음 스텝을 결정지을 두 가지 결정적 허들.
8일 고용보고서와 12일 CPI 발표 전후로 **극심한 변동성** 예상.

핵심 관전 포인트 및 주간 대응 전략

FOCUS (집중)	HEDGE (방어)	WATCH (관찰)
<p>주도주 비중 확대 유지: AI, 반도체(삼성/SK하이닉스), 바이오 중심의 포트폴리오 최적화.</p> <p>글로벌 지수 동조화의 핵심 엔진에 집중.</p>	<p>변동성 대비: 공매도 잔고 20조 원 돌파에 따른 단기 급락 위험 대비.</p> <p>금(\$103,000)과 비트코인 등 포트폴리오 완충 자산(Buffer) 활용.</p>	<p>데이터 기반 신속 대응: 개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 모니터링.</p> <p>주 후반 발표될 미국의 고용 데이터(실업률 4.3% 예상) 및 CPI 결과에 따른 금리 향방 주시.</p>

역사적 고점의 환희 속에서,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리스크 관리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.